



"속곳 열둘 입어도 밀구멍은 밀구멍대로 나왔다"

뜻: 아무리 여러 겹으로 감추거나 가리려고 해도, 본질적인 것이나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본질 · 헛수고 · 은폐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속	곳	↓	열	둘	↓	입	어	도											
밀	구	멍	은	↓	밀	구	멍	대	로	↓	나	왔	다	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속	곳	↓	열	둘	↓	입	어	도											
밀	구	멍	은	↓	밀	구	멍	대	로	↓	나	왔	다	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사] [오] [ㅇㅇ] [모모] [모모모] [모모모모] [모모모모모]

웹에서 보기

